

	문제와 철학의 대화, Prof. 강우석 / 2021-3-15 / 빌터 벤야민, <미에사스 능력에 대하여> - I/1.
I	<p><b>작용의 배경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빌터 벤야민의 &lt;미에사스 능력에 대하여&gt;는 그가 죽기 몇년 전인 1934년에 쓰여졌다.</li> <li>- 빌터 벤야민            ↗ 독일의 철학자 (광복 쓰쓰로는 본인을 몇몇 비평가나 생각)            ↗ 유대인            ↗ 나치의 집권 이후 도망나고 스스로 경찰서 체포 → 젊은 나이에 암흑 과정.</li> </ul>
II	<p><b>빌터 벤야민과 '미에사스 능력'</b></p> <p>* 미에사스 능력이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간이 모임을 통해 세계를 침범하고, 이해하는 능력 (모임 척학 능력 + 인식적 사고과정의 모임)</li> </ul> <p>* 미에사스 능력의 풍요 - 빌터 벤야민의 &lt;미에사스 능력&gt;과 개인·사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에사스 능력은 인간의 개개인생각·계통 생활 양식 차원에서 풍요를 갖음.            ↗ 개개인생각 / 계통 백성적, ← 생활적 풍요에서 유래</li> <li>- 개개인생각: 한 개인의 발견 과정이라는 차원에서</li> <li>- 계통 백성적: 한 집단(민족·민족·국가·공동체)의 발견 과정이라는 차원에서.</li> </ul> <p>* 충격: 인식률·출제률과 미에사스 능력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상의 「모임 능력」인 미에사스 능력은 인간을 인식률적으로 규정하는 능력 중 하나.</li> </ul> <p>* 천재: 인식률 / 출제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제률: 사용률 그 유통·구성·성질 자체로 접근하는 시각</li> <li>- 인식률: 인간의 사용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사용에 접근하는 시각.</li> </ul> <p>ex) 산이 있다면            ↗ 출제률 → 산을 구성하는 암반 / 산 자체의 백성 과정            ↗ 인식률 → 인간과 산의 관계, 인간이 생각하는 '산'의 이미지.</p> <p>* 아이들의 놀이와 &lt;미에사스 능력&gt;, 그리고 현대 사회.</p> <p>* 아이들이 놀 놀: 아이들은 주변의 사물·사물을 모방하며 놀아를 진행.</p> <p>ex) 개비사이·풀풀사이·여행풀사이 ... 실제로 자신이 「개비」, 「풀풀」 등이 되었대로 생각되기도 하고            ↗ 대나무가로 한            ↗ 「모임」 - 즉, 그들의 &lt;미에사스 능력&gt;의 범위로 유학을 벌음            ... 나아가 두번 「언데」의 영향으로 다른 능력들이 혼재하여 &lt;미에사스 능력&gt;으로.</p>

# 흰색 능력의 역사. 제1장. 강연 / 2021-3-15 / 박민수 박사원. <미에스 능력에 대하여> - I / 2.

### \* 흰색 사회의 미에스 능력

- 흰색 사회는 고이 사회와 다르게 「언어」라는 간접적 기호를 통해 지식 혹은 수단의 일정한 보편화로 <미에스 능력>으로 강제적으로 경험한 세계의 흐름도 ↓  
(「언어로 간접적 기술된 세계의 경계가 가능?」)
- 굳이 예상, 행위의 흐름 넘어서 「언어」로 의사소통이 가능.
- 또한 현대인들은 교육 상에서 「어떤 개념」을 접하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제적 등의 <미에스 능력>으로 확장하기 보다는 언어적 의미와 같은 언어 기호로 하는 것에 더 익숙함. (예전에는 간접 기술 수단이 업종이나(업군) 유형은 차원의 확장은 경험과 <미에스 능력>을 통한 이해였다.)
- 「언어」는 시킬-시킬 간 의사소통을 발전시켰으나, <미에스 능력>은 오히려 양보나 침해.

### \* 또 <미에스 능력>을 통해 현대인은 저강조하는가?

- 언어적 능력은 사람이 실세계를 각종 경험하는 필요를 만족하고, 시킬-실 사용 세계 간을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함.
- 현대인은 그것을 소외(사용자적·간접적으로 간접하는 상대방에게의 언어권)하고, 걱정한 것.  
Ex) 군-현대인들은 떠날 걱정 없어지는 (<미에스 능력>의 말하기) 군-그림을 통해 간접적이고 경험

### III 각을 걸기 땅기.

#### \* 2 종류의 유사성 --- 「유사」한다는 것의 기준은 2개.

- 유사성 1: 원문과 원문의 목차들의 관계 (동형성 관계)
- 유사성 2: 서로 다른 두 개념의 관계 (동형성 관계)

) 미묘하게 세로 단축이거나  
원래 있던 것이나 예외의 틀기.

#### \* 인간의 그림의 <미에스 능력> (포함·무기 능력)

- 1: 인간이 주변(환경)과 어떤 것을 경험하는 능력 (포함의 '포함'의 일정과 유사.)
- 2: 두 개념(행위)의 유사성을 인간이 발견하는 능력 (는 그것이 그것 대위주의 조건을 갖도록 이어지는 능력)

#### \* 그 외 「인간의 성기 능력」들

- 상상력, 창의력, 등 ... 동물이 가지지 못한다고 믿어지는 능력을.
- 하지만 이를過ぎ도 <미에스 능력>이 업다연 X, <미에스 능력>은 이를 능력의 Basis.

\* 자연의 모형 vs 인간의 모형.

- 자연의 <미매쓰 능력> (?)

-- 자신과 유사한 개체를 생산하는 능력(번식과 같은 양산)

-- 자신의 주변을 자신이 모방하는 능력.(의례 등)

- 인간의 <미매쓰 능력?

-- 자연의 일부를 모방·특제하여 무언가를 칠로 + 두 개체(종류)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.

↳ 궁극로 대립

( 는데 보이는 행위·이해자를 그대로 모방함 (그 시선으로 볼리스피 알고, 즉 자신=사회의 동양성 추구로)

( 사물을 자신에게 모방·적용함 (식지 그 사물로 봄되되는, 즉 자신=사회의 동양성 추구로 )

-- 아이들도 놀이에서 선생·어머니를 모방할 때는 자신 ≠ 선생·어머니라 가정이 깊어지며

가비·동물을 모방할 때에는 자신 = 가비·동물이라 생각.

\* 인간에게는 왜 유사성, <미매쓰 능력>이 필요가 있나? (왜 인간은 유사성이 지향파다?)

- 고대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었음. 따라서 인간은 현재 지을 때는 인간의 경험 세계 이상의  
비감각적 / 자연 / 신령 세계 등을 이용해들을 .

-- 인간은 자연 위의 어떤 자연 세계의 성리를 파악, 이를 스스로가 모방·적용하는 것

생존에 중요.

~ 즉, 인간이 자연에 맞추어감 (자연의 원리를 모방·스스로에게 적용)

- 인간이 잉태로서는 엿보는 각식의 특수 수단이었던 <미매쓰 능력>으로 자연 세계의 성리를 얻면  
자연을 훔쳐·여기·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→ 생존에 우리 .

\* 미망적 상용관계와 유비 관계.

- 미망적 상용 관계: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의 연계 관계 (강조와 사건의 관계)

- 유비 관계: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의 비유적 유사 관계 .

↳ 고대의 미망적 상용 관계·유비 관계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과학적 인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전이 .

\* 감각적 모방 / 비감각적 모방.

- 감각적 모방: 감각 기관으로의 경험을 모방 - ex) 어린 아이들의 놀이 (다면 그때의 시선을 모방)

- 비감각적 모방: 감각적 영역을 초월한 모방(시유·기성으로 유사성 발견) - ex) 짐승술, 학문.

\* '연어'와 '미매쓰 능력', 질문 .

- 인간은 미매쓰 능력의 필요 자체로 악화시키기도 하지만, 오히려 <미매쓰 능력>을 네트워크 수 있는 보다 보편적

기능성으로 떨어질 것인가? ~ '연어'와 '미매쓰 능력'을 어떻게 이해?